

LPGA 열린다...해남이 들썩인다

2025 레이디스 챔피언십 '특수'에 함박웃음

30여 숙박업소 '만실'·음식점 예약 폭주·사전 예약 입장권 매진
군, 범군민 준비위 꾸리고 친절·안전한 손님맞이 준비 채비 마쳐

“평일에 단체 손님 스무 명을 받아본 게 얼마 만인 지 모르겠어요. 해남에 큰 행사가 열리니까, 자영업자들도 일 할 맛이 나네요”

15일 오후 1시께 찾은 해남군 문내면의 현대식육 식당 주인 김홍안씨는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임에도 고기를 써느라 팔을 쉴새 없이 움직였다. 김씨는 “오후에 예약한 손님이 평소보다 많아, 주문량을 맞추려면 미리 일을 해야 한다”며 “여름이 다 지났지만 땀이 다 난다”고 말했다.

해남군 문내면 인구는 불과 3525명 밖에 되지 않는다. 문내면 일대 음식점들은 휴가철이 아닌 경우 지인과 동네 거주민을 상대로 ‘단골’ 장사를 해왔지만, 이번 주 열리는 LPGA 투어 대회를 앞두고 외지인들의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명절 전후는 가족이나 손님이 없는 날인데, 골프대회 덕에 단체 손님이 늘어나 한적하던 시골에도 생기가 도는 듯하다”며 웃었다.

전남에서 열리는 첫 LPGA 투어 대회를 앞두고 개최지인 해남군이 들썩이고 있다. 해남읍 숙박업소는 일찌감치 예약을 마감했고, 일대 음식점에도 연일 단체 예약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한 장에 6만 원이나 하는 입장권은 선수단 900여명에 갤러리 6만 여명이 운집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해남군도 손님 맞이에 나섰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2025 LPGA BMW 레

이디스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한 LPGA (미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대회로, 무엇보다 호남권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다.

김효주와 유해란, 김아림 등 한국을 대표하는 LPGA 선수와 야마시타 미유와 해나 그린(호주) 등 해외선수도 참가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회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사전예약으로 판매한 입장권 티켓도 3000장이 동이 났다. 주말 기준 6만 원이나 하는 가격임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됐다는 게 대회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 국내 골프 애호가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회 개최지인 해남군도 덩달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날 만난 해남군 자영업자들은 골프대회 파급효과를 연신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대회 관계자와 선수단이 머무는 해남 126호텔 신주현 지배인은 “120객실 가운데 100개 객실이 찼다. 일반적으로 주말에 20~30객실 정도가 차는데 평소보다 3~4배 많은 수준”이라며 “사실상 만실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곳 호텔 뿐만 아니라, 대회장과 인접한 문내면 일대 숙박업소들도 경기 진행요원, 보안요원, 대회 관계자들의 단체 숙박이 예정되면서 흐트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대회장과 차로 30분 가량 떨어져 있지만, 관광객들의 숙박이 예상되는 해남읍 숙박업소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해남군 외식업 지부장은 “해남읍의 모텔



해남은 16일부터 전남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LPGA 투어를 위해 선수단 900여명과 갤러리 6만 여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손님 맞이로 분주하다. 해남읍 숙박업소는 일찌감치 예약을 마감했고, 일대 음식점에도 연일 단체 예약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해남군 직원들이 군청 앞에서 관광·여행객들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다.

〈해남군 제공〉

급 숙박업소 30여개 가량이 모두 만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골프대회 특수를 누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해남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양미(여·52)씨는 “오늘 밤에 20명, 금요일 밤에 20명 예약손님을 받았다”며 “예약 손님이 많아 평소보다 식재료도 30% 가량 늘렸다”고

말했다.

개최지인 해남군은 ‘범군민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숙박 및 음식점 전담제를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손님맞이 준비에 나선 상태다. 해남군은 특히 골프대회 기간과 맞물려 진행되는 ‘2025 전남 캠핑관광박람회’와 오는 31일 개최되는 2025 해남미남(味南) 축제 흥행도 기대하고 있다. 골프대회장과 인접

한 목포시 일원도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 관계자는 “대회 기간 동안 해남군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해 대회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김민석 기자 mskim@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한수원, 한빛원전 화재 알리기 꺼린다?

환경감시기구에 6시간24분·주민에겐 20시간 지나서야 문자 발송
조인철 의원 “주민 알림 대응체계 미흡...즉시 고지 명문화 등 필요”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최대 20시간이 지나도록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늑장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원전 화재 이후 주민에게 가장 늦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원전은 지난 5월 9일 밤 10시께 한빛5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20시간 10분여가 지난 뒤에야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원전 중에서 가장 안내가 늦었던 사례로 꼽혔다.

한수원은 원전 주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한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SMS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해당 화재는 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조차 6시간 20여분 지나고 서야 화재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원전은 한빛2호기, 한빛6호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비슷한 식으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2년 2월 5일 오후 1시 10분께 한빛6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민 안내 문자는 이날 밤 9시 20분께 발송돼 8시간 이상 지연됐다.

같은 해 4월 16일 오후 5시께 한빛2호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한빛원전은 16여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9시께 안내 문자를 보냈다.

2023년 12월 13일 오후 2시께 발생한 한빛2호기 화재 때도 주민 안내문자는 6시간이 넘게 지난 오후 8시 20분에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현재 원전 화재 시 지역 주민 알림 대응체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미 완진이 된 후에야 문자를 받는 것이 재난을 대피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원전은 단순화재로도 원자로 정지, 최악의 경우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인 만큼 화재 사고 시 ‘주민에게 즉시 알리도록’ 고지 또는 내규에 명문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美 보잉사 상대 소송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 국내외 로펌 2곳을 통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 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로펌 1곳도 추가로 소송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던 중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복합적인 결함이 발생했으며, 보잉사가 제조상 과실 등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전남 또 비!

18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19일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15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 지역에 1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17일에는 전남서해

안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7~15도, 낮 최고기온 21~23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를 보이고,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4~26도가 예상된다.

18일 낮 최고기온은 21~25도를 보이다가 19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보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차세)
하루 20만원(월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